



엘로우시티 장성군의 '노란 장미' 장성군 평림동 장미공원의 노란 장미가 향기로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장미공원은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독일 등 각 나라를 대표하는 1만5천여 송이 장미꽃과 약 2만 평의 너른 공간을 지니고 있어 주말마다 행락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장성군

진도 홍보대사에 송가인... “매력 알리기 노력”

가수 송가인(33)씨가 고향인 전남 진도군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로 위촉돼 화제가 되고 있다. 진도군은 “최근 TV조선 미스트롯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해 전국적으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트로트 가수 송가인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홍보대사 위촉장을 받은 송가인씨는 “고향 보배섬 진도군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조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가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동진 진도군수(왼쪽)와 진도군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송가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동진 군수는 “송가인씨는 진도군의 자랑이다. 대한민국 대표 가수로 성장이 기대된다”고 전제한 뒤 “진도군의 홍보대사라는 자부심을 갖고 진도군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은 향우인 김민배 TV조선 대표이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가수 송씨의 어머니 송순단씨, 향우 박지원 국회의원, 지역구 운영일 국회의원, 김상헌 진도군의회 의장과 박금례 군의원, 재경진도군향우회가 참석해 함께 자리를 빛냈다. /전남 진도=김남중 기자 5555knj@

광주시, 무인공공자전거 명칭 ‘타랑계’ 선정

사투리로 광주다운 나타내

광주 무인공공자전거 명칭이 지역 사투리로 친근한 느낌이 드는 ‘타랑계’로 정해졌다.

광주광역시 10일 무인공공자전거 명칭 후보자 5건(타랑계·타게요·구르미·무등이·빛으로)에 대한 온·오프라인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타랑계’가 가장 인기가 높았다.

광주시는 지난 5월8일~19일 시민을 대상으로 무인공공자전거 명칭을 공모하고 51개의 응모작을 대상으로 대중성·상징성·독창성의 3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국어국문학과 교수, 시민단체, 시의원 등으로 이루어진 명칭선정위원회가 후보자 5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타랑계’ 무인공공자전거는 2020년 1월부터 상무지구 등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광주=봉재명 기자



‘타랑계’ 예시이미지.

오늘의 날씨

6월 11일 (화)
음력 : 5월 9일

수도권 날씨
26~15°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5:10 | 해질 / 19:53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광주시, ‘2019 지역산업거점지원사업’ 선정

차세대 이차전지 인증센터 구축

〈레독스흐름전지〉

2022년까지 사업비 250억 투입
이차전지산업 육성... 활성화 기대

대용량 차세대 이차전지산업인 레독스흐름전지 인증센터가 광주에 들어선다. 광주광역시 1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도 지역산업거점지원사업인 ‘대용량 전력 저장용 레독스흐름전지(RFB)인증센터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지역산업거점지원사업은 지역의 신산업 육성 및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조성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제공하는 부지에 연구기관 등이 건축 및 장비를 구축하는 기반조성과 함께 연구기관의 테스트베드·시험인증 등의 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인다.

레독스흐름전지(RFB)는 기존의 이차전지와는 달리 전해액을 별도의 용기에 보관하고 펌프로 순환시켜 전극에서 전해액의 산화와 환원반응으로 충·방전이 이루어지는 차세대 대용량 장주기 이차전지다. 용기의 규모에 따른 전지용량 설계가 자유롭고 전해액의 주기적인 교체로 전지의 장기간



레독스흐름전지 인증센터 조감도.

사용과 화재 발생 위험이 없는 장점이 있다.

이번 사업은 한국전기연구원을 주관 기관으로 광주시와 전남대, 한국전지연구조합,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세부 사업내용은 ▲시스템 기술개발 및 센터 구축 ▲전문인력 양성 ▲인증사업추진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연구실적(Track Record) 확보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기업지원 강화 등이다.

광주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250억원(국비 80억원, 시비 146억원, 민자 24억원)을 투입해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한국전기연구원 2단계 사업예정부지 1만㎡에 건축면적 2250㎡ 규모의 레독스흐름전지(RFB)

시험·인증센터를 구축한다.

광주시는 시험·인증센터가 구축됨에 따라 레독스흐름전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기업의 지역 이전과 정보통신(ICT) 기반 인프라가 확대돼 2030년까지 5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재원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레독스흐름전지 시험·인증센터 설립으로 앞으로 신규 대용량 이차전지 생태계 구축 기간단축 효과는 물론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봉재명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산하 공공기관에 ‘장애인좋은 일자리’ 늘린다

부산시, 기관 맞춤형 직무훈련 실시
산하 19곳, 올해 40여명 채용 전망

부산시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맞춤형 장애인 직무훈련에 나선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4%(2019년부터)지만, ‘부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에 따라, 부산시는 장애인 고용률을 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19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일자리 직무분석 컨설팅’을 했다.

‘일잡(Job)고(Go) 컨설팅단’은 부산시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부산직업능력개발원, 부산광역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일자리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2개월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달 29일 부산시청 앞 ‘420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천막농성장을 찾아 관계자와 포옹하고 있다. /부산시

여 간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장애인 일자리 발굴을 위한 직무분석 및 현장의 고용 여건을 고려한 컨설팅을 했다.

시는 산하 공공기관에 올 연말까지 40여명, 2020년에는 80명 이상의 장애인 채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장애인들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장애인 공공직업능력 개발훈련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이하 직능원)과 협력해 ‘공공기관

취업준비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훈련생 모집과 직업연계 지원에 나서고, 직능원은 훈련과정 개설을 통해 기초사무능력 배양, 사무자동화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무훈련을 한다. 특히 직능원은 장애유형별, 개인능력별 체계적인 직업훈련 서비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관 수요에 따른 공공기관별 맞춤형 훈련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기관별 직무분석 컨설팅을 제공하고, 채용분야 수요 파악을 통해 사전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 공공기관에 장애인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직능원 관계자도 “장애인 직무훈련이 시범 운영을 거쳐 2020년에는 확대 정착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는 등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최인명 기자 remark@

“간접흡연 No”... 장성군, 금연구역 합동점검

장성군이 군민의 건강증진과 금연 환경 조성에 나선다.

장성군은 오는 21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에 대한 상반기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지도·단속은 시군 합동으로 이뤄지며 담배공무원, 금연지도원 등 2개조 12명의 단속반이 주간은 물론 야간에

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의 단속 대상은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준수 여부 등이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 시 적발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및 표지판 미설치, 흡연실 설치 기준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청사, 의료시설 등 공공시설을 중점 점검하여 흡연자들을 계도하고, 신설 법정 금연구역인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에서의 흡연행위도 단속한다. /전남 장성=봉재명 기자